

역사]

덴표(天平) 13년(741년) 노토(能登)국이 옛추(越中)국의 일부였던 시대에 옛추국의 이치노미야(一宮)가 현재의 게타라이사(氣多大社) 신사였다.

게타라이사가 중앙의 문헌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일본의 시가집 『만요슈(万葉集)』에서이다. 덴표 20년(748) 옛추의 수령이었던 오토모노 야카모치(大伴家持)가 출거(出舉)를 위해 노토를 순행했을 때 본 신사에 참배하여 「멀리 하쿠이로 왔더니 하쿠이의 바다는 아침뜰으로 훌륭한 경치이다.

여기에 배와 노가 있으면 저어 나가고 싶구나」라는 시가를 읊었다. 본 신사가 얼마나 중히 여겨졌는지, 그 후에 노토의 이치노미야가 될 신위(神威)를 당시부터 이미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게타라이사는 호쿠리쿠의 일각에 있으면서도 조정으로부터 특별히 존경과 숭배(尊崇)를 받았다. 진고케이운(神護景雲) 2년(768)에는 봉록으로서 봉호(封戸) 20호와 전 2정보를 기부받았으며 자주 봉폐(奉幣)를 받았다.

사이코(齊衡) 2년(855)에는 진구사(神宮寺)에 상주승려(常住僧侶)가 배치되고 신위 또한 조간(貞觀) 원년(859)에는 정이위 훈일등(正二位勳一等)에서 종일위(從一位)로 격상되었다.

이처럼 예로부터 이어져 온 조정의 지극한 대우는 동북경영(東北經營)이나 신라와 발해를 중심으로 하는 대외관계와도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노토반도의 요충지에 진좌(鎮座)한 게타라이사의 신위는 중앙 조정에게까지 미치고 있었던 것이다.

다이고(醍醐) 천황 연기(延喜) 5년(905)에 제정된 연희제에서는 묘진다이사(名神大社)로 분류되어 기년(祈年)행사 때 조정으로부터 봉헌을 받았다. 신사명 등을 기록해 둔 「진묘(神名)장」에 의하면 게타라이사를 칭하는 신사가 다지마(但馬)국, 노토국, 옛추국, 에치고(越後)국(고타(居多)신사라 부른다)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가가(加賀)에는 게타미코(氣多御子)신사가 있으며 격식 높은 고쿠시겐자이(國史見在)신사로서 에치젠(越前)에 게타신사가 있다. 일본해(동해) 연안에서 널리 게타 신이 모셔져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고대에서의 게타라이사의 신위를 가늠할 수 있다.

겐포(建保) 5년(1217)에 장구 미나모토노 사네토모(源實朝)가 공전으로 약 11정보를 기증하였으나 아마마고대의 봉토 등에 의한 신령(神領)지로 보인다. 중세 말기에는 노토의 지방 장관이었던 슈고(守護) 하타케야마 씨가 사령(社領)을 기증하면서 신전(社殿)을 조영했고, 본사는 쌀 980섬과 약 56관(貫)에 달하는 사령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도 남아 있는 셋사(攝社)와카미야신사(국가지정 중요문화재)는 하타케야마 가문이 재건한 것이며 이시카와 현의 중세 건조물로서 소중히 보존되고 있다.

근세에 들어와서는 마에다 도시이에(前田利家)를 비롯한 역대 번주들이 게타라이사를 숭경했으며 사령 350섬(石)을 기증받았을 뿐만 아니라 기원, 기도는 물론이거니와 신전을 조영하기도 했다. 본전(오나 무치노미코토(大己貴命))과 배전, 신문, 셋사와카미야신사 (고토시로누시노미코토(事大主命)),

셋사하쿠산(白山)신사(이상 국가지정 중요문화재), 보물전, 인왕문과 비슷한 수신문(隨身門)(두 곳 모두 현 지정문화재) 등이 그것이다. 가가(加賀) 번주가 지켰던 신사의 숲 사총(社叢)(국가지정문화재)의 안쪽에는 오쿠미야라는 신사가 진좌하고 있고 「들어가면 안 되는 숲」(주석:1)으로 불리며 성역시 되고 있다. 신사격이 메이지 4년에 고쿠헤츄샤(國幣中社)로, 다이쇼 4년에 고쿠헤다이샤(國幣大社)로 승격되어 현재까지 호쿠리쿠 지방에서 글지의 다이샤(大社)로 알려진다.

<제사>
신사의 생명은 제사에 있다. 겐나(元和) 5년(1619) 유래서에서 74번 신비스런 제사를 열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신불 접촉결합(神佛習合) 시대에는 수정(修正)회, 불생강(佛生講)회, 방생(放生)회, 법화팔강(法華八講)회 등도 열렸다. 메이지 시대의 신불 분리제도와 새로운 신사제도로 제사행사가 크게 개혁되었으나 아직도 옛 의식을 전하는 특수한 신사가 적지 않다.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규모가 크고 밝고 개방적인 헤코쿠(平國)제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심야에 열리는 신비적인 우마쓰리를 들어보고자 한다.

주석 1: 1983년 5월 22일 전구 식수체에 방문하신 쇼와 천황이 본 신사에 들리셨을 때 「들어가면 안 되는 숲」에 들어가셔서 손수 어제(御製)하신 시를 읊으셨다. 「도끼가 들어가지 못했던 신사의 숲에서 드물게 우거져 있는 감귤을 보았다」

절대 함부로 따거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각 식물이 평온하게 생존해 가는 그 장소의 식물 생태가 언제까지나 보존되기를 기원하신다. 「도끼가 들어가지 못했던 신사의 숲」은 그것을 기뻐하신 표현이다.

헤코쿠(平國)제

이시카와 현 나나오시의 도코로구치마치에 있는 케타 본궁에 행차하는 대규모 신행제(神行祭)로서 현재는 3월 18일부터 23일까지 하쿠이(가시마군) 내의 두 개 시와 다섯 마을을 돈다. 미코시 가마의 긴 행렬이 이른 봄 노토 도로를 순행하는데 보통 「오이데마쓰리」라고 한다. 연도에는 사람이 모여서 신행을 맞이한다. 「추위도 게타의 오이데까지만」이라고도 하고 헤코쿠제는 신이 민중 속으로 내려와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노토의 봄 축제로 잘 알려져 왔다.

특히 주목할 점은 왕로의 21일에 로쿠세이마치 가네마루의 스쿠나히코카미카라이시신사에 일박한 후 다음날 동 신사의 스쿠나히코나노미코토(少彦名命)가 미코시에 올라타 나나오의 게타 본궁을 출발해 그곳에서 일박하면서 축전을 행사한 후 돌아간다는 점이다. 게타라이사의 오쿠니누시카미(大國主神)가 스쿠나히코나노미코토와 함께 노토를 평정한 지난날을 회상하는 행사라 전해진다.

신사로 돌아온 미코시는 4월 3일의 레타이사이(例大祭) 때까지 배전에 안치되며 헤코쿠제는 그때까지 면면히 끊이지 않고 계속된다.

레타이사이에는 경내에서 뱀눈 과녁을 향해 신관(神職)이 화살을 쏘고 창으로 찌르고 칼로 찌르는 행사가 있는데 제신이 오우치(邑知)가타 개펄에 사는 독뱀을 퇴치하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옛 기록에 따르면 야부사메라는 유적마 행사가 활쏘기 행사로 변한 것이라고 한다.

1988년에 유적마 행사가 450년 만에 부활하여 전통 방식에 따라 거행되었다. 헤코쿠제는 게타라이사가 진좌하는 유례를 전하는 중요한 의식으로 제사의 성격으로는 기년제에 속한다. 대규모의 도어제(渡御祭)로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우마쓰리(중요무형민속문화재)

우마쓰리는 12월 16일 미명에 거행되는 행사이다. 5일 전에 나나오시의 우노우라마치에서 생포된 가마우지 한 마리를 동 지역의 웃토리베라고 하는 가마우지 잡는 사람 3명이 가마우지 넣는 바구니에 넣어 2박 3일 동안의 일정으로 신사에 보낸다. 14일 저녁쯤 신사에 도착하면 가마우지에게는 먹이를 주지 않는다. 가마우지는 생포된 순간부터 신이 되어 우사마로 불리며 연도에 사람들이 나와서는 「우사마를 뵈지 않으면 신년을 맞이할 수가 없다」라며 함장한다.

16일 오전 3시가 지나서 신사에서 제전이 열린다. 축사봉상(祝詞奉上), 철찬(제사 음식을 치움이 끝나면 본전 안에는 등불 외에는 모든 불이 꺼지고 사방이 째깍해진다. 웃토리베가 가마우지가 들어 있는 바구니를 본전 앞쪽으로 옮겨와 신관과 문답을 주고받는다. 이윽고 신관이 「가마우지 바구니를 살짝 내려놓고 바구니는 버리고 가마우지를 그곳에다 풀어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엄숙하게 말하면 웃토리베는 바구니에서 가마우지를 본전을 향해 풀어준다. 가마우지가 본전 등불을 따라 날아가 본전 대에 앉으면 웃토리베는 그 가마우지를 잡아서 바닷가에 가져가 풀어준다. 가마우지는 어두운 하늘로 날아가고 어디로 간지조차 모르게 사라진다.

우마쓰리의 유래는 불분명하다. 신사에 전해져 내려온 말에 따르면 제신으로 모시는 오쿠니누시카미가 신화 상고시대에 처음으로 나나오시 우노우라마치의 가시마에 도착했을 때 이 지역의 미카도누시히코(御門主比古神)가 가마우지를 잡아 올렸다는 고사나 이 지역의 구시야타마노카미(櫛八玉神)가 가마우지로 변신해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 올렸다는 고사에 따른다고 한다.

신비적인 행사이긴 하나 게타라이사의 연중 제사에서 크게 보면 우마쓰리는 니나메사이(新嘗祭) 중의 행사였다.

헤코쿠제로부터 레타이사이(4월 3일)로 이어지는 행사가 기년제(2월 17일)의 성격을 갖는 것과 대비해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더불어 그날 밤 가마우지가 신전으로 향하는 상황에 따라 그 해의 길흉을 점치는 습속이 옛날부터 내려왔다. 가가 번의 시조인 마에다 도시이에는 덴쇼(天正) 13년(1585)에 웃토리베에게 제전(鷲田)으로 2단(段)을 기증했을 정도로 우마쓰리 행사를 중시했다. 우마쓰리 때 가마우지가 예년보다 신전 앞으로 더 나아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국가지길사 불가과지절」이라고 기쁨을 쓴 서찰도 다이샤에 남아 있다.

이 행사를 각색해 만든 노 연극으로 「우마쓰리」가 있으며, 오직 곤파루(金春) 류로 분류되는 노 연극으로 행해진 점이 주목할 만하다.

게타의 마쓰리

1년 중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그리고 매월 1일에는 쓰키나미사이(月次祭)가 열립니다.

1월	오키쓰시마 신사 레사이(例祭) (11일) 간탄사이(설날제례) (1일) 가도메시키(門出式) (11일)	7월	쓰이라치무스비 (연애 및 혼인 인연맺기) (1일)
2월	쓰이라치무스비 (연애 및 혼인 인연맺기) (1일) 기원제 (일본 건국기념제) (11일) 기년제(풍년을 기원하는 제례) (17일) 와카미야 신사 레사이 (27일) 스가와라 신사 사례사이(社例祭) (25일)	8월	쓰이라치무스비 (연애 및 혼인 인연맺기) (1일) 고코로무수비다이사이(연애 및 혼인 인연맺기 제례) (13, 14일)
3월	쓰이라치무스비 (연애 및 혼인 인연맺기) (1일) 요우다신사 레사이 (3일) 헤코쿠사이 (17~23일)	9월	쓰이라치무스비 (연애 및 혼인 인연맺기) (1일) 하쿠산 신사 레사이 (1일) 와카미야 신사 쓰키나미사이 (1일) 미니에사이(御擧祭) (1일)
4월	쓰이라치무스비 (연애 및 혼인 인연맺기) (1일) 레타이사이(例大祭) (3일) 진카사이(鎮花祭) (4일) 후토다마 신사 레사이 (4일)	10월	쓰이라치무스비 (연애 및 혼인 인연맺기) (1일) 진구사이(神宮祭) (17일) 와카미야 신사 레사이 (20일)
5월	쓰이라치무스비 (연애 및 혼인 인연맺기) (1일) 미니에사이(御擧祭) (1일) 하쿠산 신사 레사이(例祭) (1일) 와카미야 신사 쓰키나미사이 (1일)	11월	쓰이라치무스비 (연애 및 혼인 인연맺기) (1일) 시치고산 마쓰리(7세, 5세, 3세 축하의식) 니나메사이 (30일) 인야쿠신사 레사이 (30일)
6월	쓰이라치무스비 (연애 및 혼인 인연맺기) (1일) 오하라에시키 (큰 액막이 행사 大祓式) (30일)	12월	쓰이라치무스비 (연애 및 혼인 인연맺기) (1일) 우마쓰리(가마우지 축제) (16일) 기요도노사이(清殿祭) (20일) 기노하마쓰리 (29, 30, 31일) 오하라에시키 (큰 액막이 행사 大祓式) (30일) 오쿠미야 레사이 (31일) 오라비 신사 레사이 (31일) 제야제 (31일)